

# 육화법 따라 화합하라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6>

계는 불교의 순수성을 유지해 주는 빛이다. 계는 인생에 있어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가 허물어질 때 불교가 쇠퇴하는 것이며, 계행이 청정한 동안은 정법(正法)이 아름답게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오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세속적 가치를 보다 쉽게 획득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을 향해 앉아 부처님께서 버리신 왕국의 권력과 명예를 구하고 있고, 출가를 하고서도 기득권과 기존의 전도된 세속의 가치를 오히려 더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해탈을 구하면서 아집과 독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열반을 주장하면서 권위와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살신한 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를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계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영원하고 단단한 생명의 줄이며 구원의

빛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화합하게 살고 있는가?" "저희는 풀과 우유처럼 잘 어울리며 화합되게 삽니다. 난디야와 킴발라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저의 큰 복입니다. 저희들은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제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칭찬하셨다. "정말 잘했다.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들으니 정말 기쁘다. 화합할 때만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이다." 부처님은 이들 세 비구와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명상이 끝난 후 이들이

### 팔관재계-4

## 계는 구속아닌 삶의 가치 기준 청정히 계 지킬때 불교 중흥

부처님의 발우를, 킴발라는 가사를 받아들이고 노란 대나무 덩굴 바로 옆에 자리를 만들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었다. "수행은 잘 되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탁발을 다닐 때나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가?" 아누루타가 대답했다.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음식 공양도 많이 받습니다. 법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도 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저는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른 두 스님을 바라보았다. 킴발라가 말했다. "아누루타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화합 속에 살고 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 줍니다." 난디야가 덧붙였다. "저희는 뭐든지 나눕니다. 음식이든 지혜든 경험든 모두를

식을 탁발하러 가는 모습을 보셨다. 누구든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자리와 손 씻을 물을 준비했고, 빈 그릇에 자기 음식을 조금 덜어 먹을 걸 얼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반이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같이 그릇을 씻었다. 무언가 고쳐야 하거나 다른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했고,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세 사람이 모두 함께 했다. 이들은 수행과 생활에서 얻은 지

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죽임을 떠나기 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공동체의 본질은 화합이고, 화합은 육화법(六和法)을 잘 지키면 이루어진다. 공간을 나누기, 일상생활의 필수품 나누기, 같은 계를 지키기, 화합에 덕이 되는 말만 하기, 지혜와 이해를 나누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이다. 이 육화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방식의 삶을 계속 하여라." 비구들은 부처님과 같이 한 달을 지낼 수 있어 기뻐하고,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어 더욱 기뻐했다. 계행이란 결코 구속이나 강제는 아니다. 이를 구속이나 강제로 받아들인다면 계의 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계는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혹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가치 기준으로서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악업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와 남이 함께 선업을 쌓아 고통을 극복하고 불세계로 가기 위한 행동의 가치 기준이 바로 계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항상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혹시 계를 파했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을 해야 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 "한마음 잃지 않으면 생사 초연할 수 있어"

원효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죽은 뒤엔 어디로 가는가, 태어나는 것도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 같고, 죽어도 또한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질까 같다. 떠도는 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듯이 생과 사의 오고 감 또한 그런 것과 같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항상 변치 않으면 초연히 생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는 음력 15일에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재를 올리면 그 공력으로 어머니의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목련존자가 그대로 행한 데서 우란분재가 유래되었습니다. 우란분재는 거꾸로 매달려 지옥에서 무수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천도하는 공덕의 날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죄와 업의 뿌리가 깊어 거꾸로 매달려 지옥에서 구제불능이 었으나 목련존자가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드리고 천도재를 모셔 돌아가신 어머니를 왕생극락에 하였던 것입니다. 또 죽은 부모나 이 세상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 그들이 액난을 벗어나게 하려는 공덕을 쌓는 효행의 날입니다. 부처님께 뜻을 풀어 목련존자가 지옥고를 받고 있던 어머니를 천상세계로 구제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고 뜻을 받들어 우리들의 조상영가

### 법회중계 백중영가천도법회



일면스님 <남양주 불암사 주지>

### 다검생 살아오며 쌓은 원한과 업보 녹이려면 참회 마음으로 천도

연장위에 내생이 또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음과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은회고를 끊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듯 업장에 취해 생사의 고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금생에 부모자식으로 만나 갖가지 업만 쌓다가 죽음으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업보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에 혹은 형제, 이웃간에 만나는 고통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업보들을 녹이고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고 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목련존자에게 어머니와 전생으로 얽힌 업보를 끊고 새로운 정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자식, 친척,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다. 어리석음과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은회고를 끊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듯 업장에 취해 생사의 고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금생에 부모자식으로 만나 갖가지 업만 쌓다가 죽음으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업보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에 혹은 형제, 이웃간에 만나는 고통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업보들을 녹이고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고 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목련존자에게 어머니와 전생으로 얽힌 업보를 끊고 새로운 정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 20여 대학 불교학강좌 개설 '봄'

### 세계의 불교학 <26> 미국 ①

하버드·위스콘신·시카고·버지니아·에일·콜롬비아·버클리 등 명문 주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20여 곳의 대학에 불교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고, 미국종교·아시아·국제불교·비교철학·서장·발리문헌 등 10여 개의 학회에서 불교학 관련 논문이 빈번하게 발표되는 미국.

지금 있는 비트 제너레이션은 50년대의 절망을 대변하는 일군의 젊은 소설가, 시인, 진보주의자들 가라킨다. 그들은 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는데, 자연스러운 추구를 넘어서는 낭만주의 경향과 실존주의 속성을 함께 보이며, 수행자와 비슷하게 생활했다. 실제로 그들은

심취했다. 그의 유명한 소설 <달마 밤즈(Dharma Bums)>는 미국인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버클리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스나이더는 수행과 선시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의 선시는 동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선불교에 심취해 있



▷대중법회에 참여한 미국인 여성들.

이곳 불교학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북미주에서 발표된 논문 초록 전산 자료집(UMI Dissertation Abstracts Ondisc)을 검색하면 된다. 미국의 불교학이 얼마나 활발한가는 1890년부터 1998년까지 불교 관련 논문 451편 가운데, 1990년부터 8년 동안 무려 206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 불교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이지만, 불교가 연구의 주제로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미국인에게 스며들기 시작할 때는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이 활동했던 50년대, '파곤해 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가

고, 현대 사업 사회의 그늘을 수 선자(修禪者)의 시각으로 들여다 내곤 했다. 이러한 모습은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 활동과 연계하여 실용성을 연구·검토하고 있던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버드대에서 스즈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던 프롬(Erich Fromm)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당시 와트(Alan Watts)는 스즈키와 함께 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비트 젠'에 대조되는 이른바 '스퀘어 젠(Square Zen)'을 이끌었는데, 미국 주류 사회에 전통적 선을 소개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이 시기에 아시아로부터 몇 명의 선사들이 미국에 와 참선을 지도한 것을 계기로 일본 선불교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1956년 일본 임제종과 조동종 전통을 겸수한 마에즈미 루시가 스즈키에게 왔고, 1959년 일본 조동종 계통의 스즈키 루시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며, 스유 마추오가 루시가 시카고에 가서 참선을 지도했다. 그해 중국으로부터 선화 법사가 북주에 만불

성(萬佛城)을 개원해 중국불교 포교의 기틀을 다졌다. 월남의 불교학자 틱 티엔안 박사도 196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불교 명상 센터와 동양학원을 설립했고, 스리랑카의 구나라타나 스님은 워싱턴에 1969년 탈랑 툴구(Tarhang Tulku)가 버클리에 티베트 사원을 개원했다. 이와 같이 신행 공동체가 증설되는 가운데 대학이 종교학과나 아시아의 언어·문화 분야 학과에서는 불교가 개설되고, 불교사적으로 많이 발전되면서 자연스레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50년대 비트세대 불교에 심취 1890년 이후 논문 4백51편 발표

갓바위, 소원성취

## 원광 달마도

①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처드립니다.

정명우사 그린달마도 시법·합격·승진

부부회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 재수대동, 수액차단

지정된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획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연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쯤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얼이 담긴

국내 최초 특허청에 등록 (제0246178호)

## 승복·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려(水麗)"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제정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연꽃·옴·민자무늬를 원단에 직접 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자기도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려바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대의장 등록증

특별보급가격

저고리	남:85,000
바지	여:80,000
긴조끼	남:45,000
	여:4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표장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충신빌딩1층)  
■ 상림점 (053)764-4114  
■ 유대점 (011)9850-44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받음

##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氣가 쏟아진다.

(건강양말의 섬유구조)

◆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액순환, 향균발생
- 원작외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 건피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수취해소
- 원작외선 차단

◆ 특별할인 전시 판매가격

男 10켤레 35,000  
女 10켤레 30,000  
(타지역 부처드림)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 전시판매장소 :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